

불심으로 되살린 남원불교대

폐교위기에 동문·지역불자들 나서 신입생 정원 채우고 단독학사 완공

폐교위기에 있던 남원불교대학(학장 도법)이 동문들과 지역불자들의 합심으로 10기 신입생 60명 정원을 채운 것은 물론 최근 동문들이 주축이 돼 학사를 완공했다. 이와 함께 반복사지 복원과 불교복지관 건립등 장기적인 지역불교 발전방안도 마련하여 지역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교 7년째를 맞는 남원불교대학은 올해 2월 신입생 부족으로 대학운영위에서 격년제 모집을 강구하는 등 사실상 폐교위기에 몰리게 됐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남원불교대 동문회적인 남원불교연합회(회장

이정섭·이정섭외과 원장)가 신입생 모집에 적극 나서고, 동문들도 21명이 재입학하여 정상적으로 10기 강의가 이루어지게 됐다.

또 남원불교연합회는 동문들과 합심하여 9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과 사무실을 갖춘 30평 규모의 불교대학 단독학사를 선원사내에 완공했다. 그 동안 일반건물에 새들어 있던 남원불교대학의 사정을 봐 온 선원사 주지 일화스님이 사찰경내에 학사시설을 제안하며 부지를 마련해 준 것.

학사신축은 동문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으로 자재를 구입한 뒤 기공공사 내부공사를 직접 해냈다.

방송 기자재, 철관, 책·결상등 내부시설도 동문들이 각각 분담하여 새로 마련, 제 2의 개교를 맞게 된 것이다.

남원불교연합회 이정섭 회장은 "올해부터 안정적인 대학운영을 위해 6기 동문들이 매년 20여명씩 다시 입학하기로 했다"며 "5년 내로 570평부지에 4층 규모의 불교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등 동문들의 역량을 모아 지역불교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불교연합회는 학사신축의 여세를 몰아 5월 6일 고려시대 대찰이었던 기린산 만복사지(남원읍 양정동)에서 지역불교발전과 사지복원을 기원하는 만복사 및 탐돌이 행사를 개최한다. 여기에서 모이자는 기금은 지역불교 발전 및 만복사 복원 불사금으로 적립된다.

조선시대 김시습의 소설(만복사저포기) 배경이 된 만복사에는 현



동문들의 합심으로 기사회생한 남원불교대학의 강의장면.

제 오층석탑(보물 제30호) 불상대좌(보물 제 31호) 당간지주(보물 제32호) 석불입상(보물 제43호)과 석인상을 비롯한 금동불입상등의 유물이 남아있다.

한편 99년 7월 창립한 남원불교

중 단 소식

조계종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신허)는 9일부터 11일까지 2000년 경진년 보살계 수계산림(사진)을 봉행했다. 진계아사리 영축 대화상, 갈마아사리 지안 대화상, 교수아사리 상우 대화상을 삼사로 지중 무관 호명성과 선진 지은 학오 스님을 칠중사로 3천500여명의 대중이 보살계를 수계했다. 수계식 후에는 계첩을 머리에 이고 부도탑을 도는 탐돌이가 이어졌다.

태고종

합동 득도수계 행사접수

제24기 합동득도수계산림에 참가할 행사등록을 오는 5월 31일까지 서울 종무처와 각 시도 교구 종무원에서 받고 있다. 참가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하고 1, 2회에 걸친 소양시험을 모두 합격해야만 한다. (02)745-2030

선암사 불서·천연향 전시

순천 선암사(주지 인곡)는 5월 31일까지 만세루에서 불서 및 전통 향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회에 나오는 불서는 <태고총림 선암사>를 비롯 1천여종이며 향은 심향 묵향 안식향 해향 등 전통 천연향들이다. (0661)9308-7979

양평 양산사 범당 기공

양평 양산사(주지 길웅)는 25일 오전 11시 범당 기공식을 갖는다. 이날 총무원장 문덕스님을 비롯 종단스님들과 신도 등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0338)771-3700

진각종

종단 이미지 통합 선포

통리원(원장 성초)은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종인원 야외 잔디밭에서 종단 이미지 통합 작업 선포식을 갖는다. (02) 913-0753

대구서 밀교교리법회

총금강의 대구지부는 29일 오후 2시 대구 대백예술극장(대백프라자 11층)에서 밀교교리법회를 봉행한다. 법사는 종학연구실장 해정대장사.

조동종

국태민안 기원 방생법회

총무원은 7일 충남 금강천에서 종도 1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국운융창 및 수륙 영산천도대제 합동 방생대법회(사진)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학봉스님은 방생사에서 "오늘 봉행한 영산수륙대제로 인해 모든 영혼들이 이교득락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도 더 나아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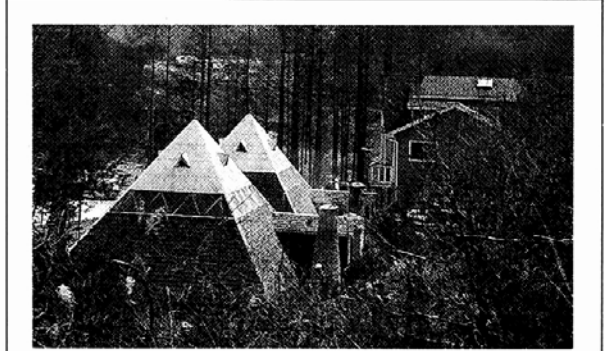
금릉사 최수임 주지 진산

서울 은평구 금릉사는 28일 정오 금릉사 대웅전에서 최수임(行天) 주지 진산식 및 영가천도대제를 봉행한다. (02)383-3346

진각종

자비암 개원 법회

자비암(주지 자광)은 9일 총무원장 정암, 종회의장 대운스님 등 사부대중 3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석굴입구와 피라미드 건축양식을 조화시킨 '피라미드-황토석굴암'

피라미드·석굴암 건축양식 조화

황토방 참선도량 '눈길'

안진근씨 보현암에 건립

이집트 피라미드와 경주 석굴암! 이질적인 동·서양의 건축양식이 조화를 이룬 신개념의 황토방 참선도량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문수도량으로 이름높은 문수암 인근 보현암에 자리잡은 '피라미드-황토 석굴암'이 바로 그것. 이집트 피라미드를 축소한 목조피라미드 모양의 건물 내부에는 황토석굴암이 들어섰다. 황토벽돌만을 사용하여 반원구형대로 쌓아올린 황토석굴암은 좌선공간일 뿐만 아니라 바다의 구름과 되어있어 찜질효과도 볼 수 있다.

이곳이 바로 문수암 방장 정천 스님의 수행도량이다. 문수암 옆 천연동굴에서 수행하던 스님을 위해 황토연구가 안진

근(황토건축 대표) 씨가 건강관리와 참선수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피라미드-황토 석굴암'을 보현암 뜰에 지어 준 것.

조용히 수행에만 정진할 수 있는 천연동굴을 찾아보기 힘들고, 그렇다면 '절방을 천연동굴과 유사하게 황토로 지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안씨의 착상이었다.

'피라미드-황토 석굴암'의 구조를 이루는 삼각형과 원은 만다라 그림의 기본이기도 하다. 한마을에너지과학연구소 허창욱 박사(신과학정보센터장)는 "삼각형은 발전과 진보를, 원은 조화와 균형을 내포하는 원형이다"며 "이러한 원형을 공간에 배치하여 형상화한 것이 바로 피라미드와 돌이다"고 주장한다. (017)585-6045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송림사에 5층탑 세운 까닭은

김철금씨 3년 월급 모아

불교 중흥·주민 평안 발원

한 촌로(村老)가 '불교중흥'을 염원하며 3년간의 공직생활에서 모은 월급으로 5층석탑을 조성해 화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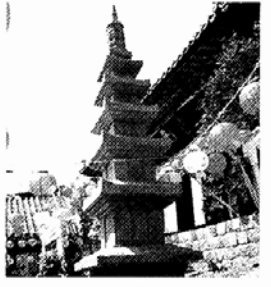
11일 익산시 합라면 송림사(주지 지광)에서는 2차불사 회향법회 식전행사로 5층석탑 제막식이 열렸다. 이 석탑은 김철금씨(익산시 웅포면 거주) 부부가 송림사에서 '불교중흥과 지역발원. 모든 사람들의 평안'을 발원한 뒤 3년만에 세운 것.

김씨는 기도 후 곧바로 인근 공장에 취업하여 허드렛일을 도

우며 월급 70만원을 받았다. 이 중 10만원만 노부부의 생활비로 충당하고 60만원과 매달 아들이 보내준 용돈을 3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모아 5층 석탑을 조성했다.

김씨 부부는 당초 사찰에 탑을 조성한 연유를 비밀에 부쳐 달라고 당부했지만, 송림사 신도회는 김씨부부의 뜻을 기리고 다른 사람들의 신행의 사표로 삼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 같은 조성내역을 공개했다.

송림사 주지 지광스님은 "김철금거사 부부가 절에 와 석탑보시의사를 비쳤을 때 망설였지만, 원력을 세우고 3년간 열심히 일 해서 마련했다는 얘기를 듣고 꽤



김철금씨 부부가 보시해 조성한 송림사 5층탑.

송림사는 1998년부터 2차불사를 시작하여 묘사 안심당, 산신각전립, 진입로 포장 및 관공공사, 영원전·나한전을 보수했다. 특히 묘사 안심당에는 주지스님이 대전에서 되찾은 소소독성상과 목조여래상을 봉안했다.

익산=김원우 기자

창원사암련 시민유등제 다양한 행사로 화합 다져

창원불교사암련협회(회장 원정)는 창원불교청년회(회장 성환복) 주관으로 15일 창원 용지호수에서 '창원 시민의 날' 기념 제9회 시민유등제를 거행했다. '희망의 새천년, 창원과 함께'란 주제로 열린 이번 유등제는 종교행사의 차원을 넘어 50만 창원 시민이 함께 하는 대화합의 행사로 승화되었다.

유등제 식전 문화행사는 놀이패 공연 장승만들기시연 청소년학과 당 북춤 부처님아시니 등, 본 행사는 시민화합 기원대법회 축동점화 뜻들이 유등 등으로 진행됐다. 이 밖에 부대행사로 달마도 전시 및

그리기, 연등만들기, 사랑의 동전 모으기, 널뛰기 투호 등 민속놀이, 분재전시, 경주 남산 사진 전시, 자비의 인절미 보시 등이 차례롭게 펼쳐졌다. 김재경 기자

전통향 제조 취운향당

경북 성주 새공장 개원

사찰에서 비전되던 전통향을 제조하고 있는 취운향당(대표 능스님·사진)이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에 새공장과 기숙사를 건립, 9일 이전화장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새공장은 대지9백평 건평5백평에 매월3만톤의 향을 생산할수 있는 규모, 순수 자연향료만을 사용하는 취운향당은 미국 일본 대만 등지로 수출된다. (054)933-6371



선남면 도성리에 새공장과 기숙사를 건립, 9일 이전화장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인터넷 마하몰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에는 『사찰과 그 주변을 환히 밝히고 있는 마하 반야심경 봉축등을 만나십시오』

☎ 02)732-1522(직) 02)737-8881

인터넷 주문: <http://www.mahamall.co.kr>

마하 반야심경 봉축등은...

각종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며 행사기간 내내 사찰과 그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 물에 젖지 않으며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밝고, 다양한 색디자인과 단청문양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도량의 장엄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야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부처님의 교설을 열심히 공부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불자들의 서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주문전화 : 02)732-1522(직통)/737-8881(대표)
▶ 주문팩스 : 02)737-0697
▶ 판매원 : 마하몰

이 연등은 재가불자들의 구매용이 아닙니다.

마하 반야심경 봉축 조립등

<설치순서>

1. 연등의 윗부분을 조립한다.
2. 연등의 아랫부분을 조립한다.
3. 연등을 설치한다

■ 규격 : 폭28cm x 높이28cm

■ 초꽃이 포함, 등걸이 철사 포함, 이름표 포함, 탁승비 별도

■ 가격 : 1,840원

※ 실용신안 번호 : 제 0160182호

(이름표) 부처님 오신 날

비어 있지 않습니다.

마하 반야심경 봉축 접등

<설치순서>

1. 접힌 상태의 연등을 편다.
2. 내부에 접혀 있는 지지철봉을 누른다.
3. 연등을 설치한다.

■ 규격 : 폭28cm x 높이28cm

■ 초꽃이 포함, 등걸이 철사 포함, 이름표 별도, 탁승비 별도

■ 가격 : 2,500원 (이름표 포함 2,600원)

※ 실용신안 번호 : 제 0179042호

(이름표) 부처님 오신 날

비어 있지 않습니다.